

神人調化의 思想的 意義

朴昇植*

目 次

I. 研究의 視覺	2. 神人調化의 의의
II. 神과 人間의 關係	V. 神人調化의 思想的 價値
III. 韓國人의 神觀	1. 人間尊重
1. 傳統的 神觀	2. 人格完成
2. 巫俗信仰의 神觀	3. 완전한 조화
IV. 神人調化의 意義	4. 理想社會의 실현
1. 大巡思想의 神觀	VI. 結論

I. 研究의 視覺

본 논문은 대순사상의 하나인 신인조화에 관해 연구한 것이다. 신인조화는 음양합덕을 신과 인간의 관계에 적용하여 전개한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신인조화는 음과 양이 각각 갖고 있는 덕(德)을 상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음양합덕의 개념을 신과 인간의 관계에 적용하여 정립한 사상인 것이다.

신인조화는 신과 인간이 공존할 수 없는 독립적 존재로 보아온 기존의 관념에서 탈피하여, 신과 인간이 협력적인 상생관계를 갖을 수 있다는 사상이다. 일반적으로 신은 인간과는 다른 초월적 능력을 가진 특수한 존재이며,

* 행정학 박사

인간은 신의 뜻을 무조건 존중해야 하는 종속적 존재로 인식해 왔다. 신인 조화는 이러한 전통적인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벗어나 인간도 신과 같은 인격과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전제한다. 신인조화는 인간을 신과 같이 존중해야 하며, 인간과 신이 공존하면서 서로가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상생 관계(相生關係)를 가져야 한다는 이념을 제시해 주고 있다.

신인조화는 전통적인 신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였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지만, 종교적 차원에서도 커다란 의의가 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인간생활의 궁극적 목표를 우주와 형이상화적인 일체를 이루는 데에서 얻는 해방감을 경험하는데 두고 있다. 종교의 목표는 인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진리와 인간의 참다운 실체를 발견하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절대원칙(absolute principle)과 일체화하는데 있다.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로우며 절대원칙과 일체화하는 방안으로 대부분의 종교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의 뜻에 따른 삶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비합리적이고,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데에서 많은 문제가 파생하고 있다. 즉 절대신을 숭배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신에 종속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경시하고 물질적 욕구만을 추구하여 인간성을 상실하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현대인들은 신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주체성을 상실하는 것과, 한편으로는 신을 부정하고 있는 데에서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종교는 하나의 신념체계라 할 수 있는데, 종교인이 갖고 있는 신념체계는 절대적이고 궁극적이다. 종교인들은 인간의 존재가치와 행위의 의의를 종교적 신념체계로 판단하고, 삶의 궁극적 목표도 종교적 신념체계의 실현에 두고 있다. 절대신을 숭배하는 종교인의 신에 대한 신념체계는 무조건적이어서, 맹신화(盲信化)되어 인간의 자유로운 삶을 제한하고 존재가치를 약화시키는 경향이 많다. 그리하여 인간이 절대신을 숭배하는 신앙생활에서 해방감을 느끼고 자유를 누리기 보다는 오히려 주체성을 상실한 종속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반면에 현대사회에서는 신의 존재에 대해 경시하는 경향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靈的 世界)와의 관계는 영적인

세계가 무한한 전체라고 본다면, 물리적 세계는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이 영적세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물리적 측면에 기울수록 정신적 초월성에 대한 욕구는 약화된다. 문명이 물리적 세계에 덜 얽매어 있을수록 인간은 총체적으로 물질적 차원의 한계를 초월하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심오한 영적 진수를 누리게 된다.¹⁾ 즉 인간이 물질적 욕구를 절제하고 정신적 초월성을 추구할 때, 진정한 자유와 참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절도를 모르는 소비와 물질적 소유에 대한 통속적인 애착으로 정신적·영적(靈的)인 삶의 가치를 경시하고 있다. 인간이 물질적 욕구를 키우고 계속 더 많이 충족하려는 가운데에서 인간성을 상실하였고, 정신적으로 자유롭고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현대인들의 물질만능주의와 기계론적 결정론(機械論的 決定論)에 의한 편향된 가치관에 원인이 있다. 즉 자연의 법칙을 경시하고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데에서 나타난 문제들이라 할 수 있다.

오도(誤導)된 종교인의 신념체계를 바르게 정립하고, 정신보다는 물질에 지나치게 편향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종교적 신념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절대신을 숭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맹신과 인간의 주체성 상실의 문제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데에서 파생되는 물질추구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인조화에 의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시각에서 대순사상의 신인조화에 관해 논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인의 전통적 신관과 무속(巫俗)의 신관을 고찰한 후, 신인조화의 의의와 사상적 가치를 논구해 보고자 한다.

II. 神과 人間의 關係

신과 인간이 조화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신인조화의 사상적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신인조화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과 인간의

1) 김명자, 김건 譯, 엔트로피(서울 : 동아출판사, 1992), pp. 17-18

본질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신과 인간의 본질을 파악하였을 때에 신인조화의 의의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고, 그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신에 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無神論)도 있지만, 무신론은 일반성이 없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유신론에 있어서도 신관은 각기 다양하다. 그리고 각 종교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신의 의미와 관념도 각기 다르며, 하나의 신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종교에서도 신의 의미와 종교적 해석이 다른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신의 의미에 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신이란 인간과는 다른 초능력을 소유한 존재로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물론이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신은 우주 만물의 생명과 존재의 근원으로써, 생명창조와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신의 의지에 의해 우주 만물은 생성되고 소멸되기 때문에, 신은 자연과 인간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 있다.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일은 신의 도움과 지원이 없이는 성취할 수 없으며, 인간이 성취한 모든 업적은 신의 계시와 도움을 받아 이룬 것으로 믿고 있다. 인간은 특정한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신에게 기도하고 성취하였을 경우에도 신에게 감사 기도를 한다.

인간이 신에게 의지하고 신의 뜻을 받드는 생활은 인류가 출현하면서부터 시작된 자연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인류는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인 원시시대부터 자연신을 숭배하여 왔다. 무생물을 생명이 있다고 여기는 애니미티즘(animatism), 동물숭배(animatism), 정령숭배(manism) 등은 원시신앙인 애니미즘(animism)이다. 애니미즘은 좁은 의미로는 영혼 관념에 관한 이론이고, 넓은 의미로는 영적 존재 일체에 관한 이론이다.²⁾ 애니미즘은 사람은 물론 우주 만물에는 모두 정령((anima)이 있으며, 정령(精靈)은 초자연적이며 신비한 것으로 인간과 자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³⁾ 큰 나무나 바위, 인간보다 힘이 세고 날쌔 동물들은 모두 신비스러운 정령이 있다고 믿어 숭배하여 왔다.

2) 김종업 역, 지그문트 프로이트 토템과 타부(서울 : 문예마당, 1995), p. 115

3) E. B. Tylor, *Religion in Primitive Culture* (New York : Harper & Row, 1958)

원시인들은 세상에는 호의적이거나 악의적인 영적 존재들로 가득 차 있으며, 모든 동물과 식물은 물론 무생물들까지 영적능력(靈的能力)을 갖고 존재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원시시대에도 사람은 영혼을 지니고 있는데, 영혼은 육체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고 믿었다. 영혼은 인격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영혼이 애니미즘 체계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애니미즘은 모든 시대에 대부분의 민족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애니미즘은 하나의 사고체계인 동시에 세계의 본질을 설명하는 세계관이 되어 왔다. 애니미즘을 미신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종교적 기반을 형성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종교는 애니미즘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현대사회에서도 애니미즘은 인간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애니미즘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무속신앙에서는 신이 인간에게 길흉화복(吉凶禍福)을 일방적으로 내릴 수 있어 인간은 신에게 무조건 빌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신을 잘 숭배하고 극진히 공대함으로써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성취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인간 보다는 신을 절대적 상위에 놓고 있으며, 인간은 신의 예속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신관은 절대신을 숭배하는 기독교 신관에 잘 나타나 있다. 중세를 통해 유럽을 지배하던 기독교적 세계관(The Christian World View)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오로지 내세를 위한 준비단계로만 보았다. 기독교적 세계관은 순환개념이 아니라, 붕괴하는 개념으로 역사를 파악하고 있다.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역사는 시작, 중간, 종말이 명백하게 창조, 구원, 최후심판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다. 인류 역사는 순환적(循環的)인 것이 아니라 선형적(線形的)이며, 또한 어떤 완전한 상태를 지향하는 것도 아니라고 믿었다. 역사는 악의 유혹과 위력이 끊임없이 세상을 혼돈시키고 붕괴시키려는데 대한 투쟁으로 보고 있다.

기독교의 원죄설(原罪說)도 인간이 스스로 보다 나은 상태로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기독교의 신은 일생의 만사를 주관하는 절대적인 인격신이였다. 절대적인 유일신이 만사를 빈틈없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인간이 역사를 창조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신의 뜻이기 때문에 역사도 신

이 만드는 것이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삶의 목적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구원을 받는 것이 전부라 할 수 있다. 사회는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의 유기적 전체(有機的 全體)로 인식되었고, 각 개인은 거기서 기능을 맡은 일부로서 세계는 신성(神性)에 의해 인도되는 도덕적 유기체(moral organism)로 보았다. 란달(John Randal)은 중세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 모든 것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참배하는 존재로서만 의미가 있었다”⁴⁾고 하였다. 신학적 체계속에서 개인적인 것은 용납되지 않아, 인간의 자유나 권리는 존중되지 않고 의무와 복종이 미덕이었고 당연시되었다.

애니미즘과 기독교적 신관에서는 인간은 주체성을 상실한 존재로 신에 예속되어 있다. 인간은 무기력하고 비인격적 존재로서 신의 뜻을 무조건 따라야 하고, 신의 구원만을 기다려야만 한다. 이러한 신관은 비합리적이고 인간이 주체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인간은 신에 비해서 유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이지만, 신에만 무조건 의존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인간이 주체성을 갖고 신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생활하는 태도가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신과 인간의 관계가 수직적이고 지배-복종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간이 자기 의지를 갖고 신의 뜻을 수용하는 태도가 적합하다고 본다. 즉 인간이 인격을 갖고 주체적으로 신의 뜻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하겠다.

김형석은 인격은 통일성, 주체성, 창조성 등을 의미한다고 한다.⁵⁾ 인격은 첫째로 의식과 사고의 통일성, 육체와 정신의 통일성, 행위와 경험의 통일성 등을 내포한다. 둘째로 인격은 주체성을 의미한다. 주체자란 모든 것을 언제나 소유할 수 있는 능동적인 소유자를 말하며,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를 의미한다. 셋째로 인격은 창조성을 의미한다. 인간이 삶 그 자체를 새롭게 개선하며 창조해 나가는 태도를 말한다. 인간의 인격은 통일성, 주체성, 창조성을 의미하는데, 종교는 인격을 완성하고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는데 기여해야만 한다.

4) John Herman Randal, *The Making of the Modern Mind* (Cambridge, Mass. : Houghton Mifflin, 1940), p. 40

5) 金亨錫, 倫理學(서울 : 三中堂, 1981), pp. 147-154

인간이 종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주체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야 한다. 종교란 인간의 내면성(human inwardness)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격의 주체로써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종교가 인간의 인격을 도야하고 자신의 내면세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신에 종속된 종교 생활은 인간의 주체성을 상실할 수 있으며, 자아가 상실된 생활이 될 위험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과 인간의 관계도 신에 종속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인격을 도야하고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하겠다.

Ⅲ. 韓國人의 神觀

1. 傳統的 神觀

한국인은 원시신앙에서부터 신을 존중하고, 신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개인들의 행복을 추구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건국신화(建國神話)에서부터 하늘과 신을 존중하는 의식이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신관은 원시신앙과 무속신앙에서도 계속 이어져 왔다. 이러한 한국인의 전통적 신관에 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최초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檀君神話)는 신이 인간이 될 수 있고,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천신(天神)인 환인천왕(桓人天王)은 서자(庶子)인 환웅천왕(桓雄天王)께서 천하에 뜻이 있어 인간세상을 구하려는 것(食求人世)을 알고 신단수(神檀樹)에 내려 보냈다. 환웅천왕은 꿈이 여자로 화신(化身)한 응녀(熊女)와 혼인하여 단군(檀君)을 낳았으며, 단군은 고조선을 개국하였다. 단군신화는 신이 사람으로, 꿈이 여자로 화신하였는데, 이러한 화신은神通력(神通力)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과 인간이 혼인하여, 탄생한 단군은 신인(神人)이라 할 수 있다. 단군의 건국신화에서 환인천왕은 천신이고, 환웅천왕은 지신(地神)이며, 단군은 인신(人神)으로 이들은 삼신이 된다. 삼신은 동일혈통이므로 삼위일체사상이 성립된다. 여기서 우리의 고유한 신관인 천신, 지신, 인신의 삼신 관념이 형

성되었고, 전통으로 이어져 왔다. 하늘과 땅에는 각각의 신들이 있으며, 사람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관념이 형성되었다.

둘째, 단군신화에 나타난 이념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을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홍익인간은 인신인 단군이 공표한 것으로 신의 뜻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정신은, 신이 인간으로 화신한 환웅천왕과 그의 아들인 신인인 단군이 천명한 것이기 때문에 신의 뜻으로 인식하여 왔다. 홍익인간의 이념에 나타난 정신은 인간 하나 하나를 구제한다는 보편적 인간애와 평화정신을 담고 있다. 신라의 박혁거세(朴赫居世)나 고구려의 동명왕(東明王)의 광명이세(光明理世)나 이도흥치(以道興治)의 건국신화도 모두 신의 뜻을 이어 받아 광명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도로 나라를 다스려 천하를 화평하게 함을 이상으로 삼았던 것이다.⁶⁾ 즉 국가의 통치이념이 신의 뜻을 존중하고, 신의 은총을 받아 모든 사람들이 복된 삶을 누리게 하려는 신시(神市)의 건설을 목표로 해 왔다. 그리고 신의 뜻을 존중하는 의식은 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풍속을 형성하게 하여 제천의식(祭天儀式)이 국가의 주요한 행사가 되었다.

셋째, 한국인의 신관에는 상대적 이원성(相對的 二元性)과 융화적 일원성(融化的 一元性)을 동시에 갖고 있다. 단군신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웅(神雄)과 웅녀(熊女)는 천(天)과 지(地)로써 음양의 양면성을 갖고 있으나, 일신(一神)으로서 환웅(桓雄)을 숭배하고 있다. 신은 인간에게 두려움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양면성을 갖고 있으며, 이 신은 둘이 아니라 한 신인 하나님(한님)이다. 하나님은 유일자이고 영원함을 뜻하고, 한님은 공간적으로 전체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상대적 이원성과 융화적 일원성의 신관은 음양의 대립과 통합에 기초한 신관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우리는 신과 인간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믿어 왔다. 신은 인간의 생명과 영혼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믿고 있다. 단군신화에서 하늘을 상징하는 환웅을 아버지로 하고, 땅을 상징하는 웅녀를 어머니로 하여 탄생한 것이 단군이기 때문에 인간은 천지의 중간을 의미한다. 단군은

6) 柳承國, “韓國人の神觀”, 張秉吉 教授 隱退紀念論叢 刊行委員會, 韓國宗教의 理解(서울: 集文堂, 1985), pp. 131-132

천선과 같은 혈통을 갖고 있는 인신으로써, 그 후손인 우리들은 하늘의 뜻에 따라 출생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의 전통적 신관은 신본주의(神本主義)나 인본주의(人本主義)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개념은 동명왕의 아버지는 천제(天帝)이고 어머니는 하백여랑(河伯女郎)으로 신인상화(神人相和)의 특징을 가졌는데, 신라 화랑의 영육쌍전(靈肉雙全)도 그러하다.⁷⁾ 신과 인간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신과 인간이 서로 화합하여 조화를 이룰 때 완전해질 수 있다고 믿어 왔다.

다섯째, 우리의 신관은 신인합일(神人合一)을 최고의 경지로 삼고 있다. 소인에서 군자로, 군자에서 현인으로, 현인에서 성인으로, 성인에서 신인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데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인간은 천지의 중간에 존재하고 있다고 믿어, 자신을 존귀하게 생각하여 왔다. 인간이 존귀하다는 의식은 인간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하였다. 인간도 덕을 쌓고 노력을 하면 신과 같은 존재인 신인이 될 수 있다고 믿어 왔으며, 이를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여 왔다.

여섯째, 우리는 전통적으로 조상신(祖上神)을 숭배하여 왔다. 인간이 자신을 존귀하게 생각하면, 자신의 근원을 찾게 되고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다. 자신의 근원을 찾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에서 조상숭배사상이 나온다. 죽은 조상신이 후손들을 보호하며 복을 준다고 생각하며, 부모로부터 먼 조상까지 숭앙하며 가장 높은 조상신의 근원을 하나님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부계사회(父系社會)에서는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 가계를 계승하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집안을 번성케 해야 하는 사회적 권리와 의무관계가 있다. 아버지는 사후에도 집안의 번영을 위해 후손을 도와 주고 희생을 한다고 믿어 조상숭배정신이 발달하고 조상신의 성격은 선하다고 믿는다.⁸⁾ 조상신을 잘 공경해야만이 자손에게 복을 준다는 기복적 신관(祈福的神觀)이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의식은 다른 종교를 믿는 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7) 上揭論文, p.138

8) T. Tatje and F. L. K. Hsu, "Variations in Ancestor Worship Beliefs and Their Relation to Kinship," *Southwestern Journal of Anthropology*, Vol. 25 (1969), p. 163

2. 巫俗信仰의 神觀

무속신앙도 우리의 관습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쳐 왔다. 우리나라에 전래된 모든 외래 종교들도 전통신앙인 무속과 접합되어 한국적 종교로 변화되었다. 예를 들면 무속신앙은 불교를 기복화(祈福化)함으로써 불교의 윤리를 무력화시켰으며, 유교의 윤리적 합리주의는 무속의 주술적(呪術的) 비합리주의를 배척하였으나 조상숭배의 의례(儀禮)는 가신신앙(家神信仰)과 결합하여 기복신앙이 되었고, 도교는 무속에 완전히 흡수된 상태에 있다.⁹⁾

무속신앙은 무당(shaman)이 신령과의 접촉으로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빌어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 주술적 종교현상이다. 무속신앙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민간신앙으로써 미신, 또는 속신(俗信)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우리의 생활 전반에 깊숙히 뿌리박고 있다. 무속신앙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범세계적인 종교현상으로 매우 오래전부터 발생하고 전승되어 왔다. 무속신앙은 구석기시대말부터 시작된 종교현상으로 추정하고 있는데,¹⁰⁾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무속신앙은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의 출생시 산신(産神)에게 감사제를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의식, 그리고 사후 저승에서 잘 살게 해달라는 사령제(死靈祭)인 천도(薦度)굿에 이르기까지 일생에 걸쳐 지배해 왔다. 마을의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도 무속신앙은 평안과 풍작 기원을 하는 당굿, 지신제(地神祭), 동신제(洞神祭) 등 수천년 동안 민간신앙이 되어 왔다.

무속신앙에 의하면 우주는 천상계, 지상계, 지하계의 삼층구조로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¹¹⁾ 천상계는 공명세계로 천신(天神)과 아래의 여러 신들이 있고, 지상계는 중간세계로서 인간과 각종 동식물이 존재하고, 지하계는 암흑세계로 악신(惡神)과 악령(惡靈)들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무속신앙에서 신령들의 계보는 ① 천신계(天神界), ② 지신계(地神界), ③ 인신계(人神

9) 文相熙, “土俗信仰이 韓國人의 倫理觀에 미친 影響”,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哲學思想의 諸問題(서울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5), pp. 56-63

10) Joseph Campbell, *The Mask of God : Primitive Mythology* (New York : Viking, 1959), pp. 229-231

11) 韓相壽, 韓國人의 神話(서울 : 文音社, 1980), pp. 35-39

界), ④ 잡신계(雜神界)로 나눌 수 있다. 천신이나 지신은 본래적인 자연적 신령이다. 인신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신령(神靈)이나 악귀(惡鬼)가 된다고 믿는 데에서 형성된 신으로 비본래적 신령들이라 할 수 있다. 잡귀는 오래 된 가축이나 파손된 기물, 수령(獸靈) 등으로 형성된 신들이다. 천신이나 지신들은 인간에게 복을 주는 선신(善神)들이고, 인신은 의인적(擬人的)으로 표상되고, 잡귀들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악령(惡靈)으로 믿어 왔다. 한국 무속에서 신앙대상은 273종의 무신(巫神) 중 자연계가 63.6%, 인신계가 33.3%, 기타가 4.1%라 한다.¹²⁾

무속신앙에서 숭배대상이 되는 신령은 엄청나게 많다. 제주도의 무당인 신방(神房)에 의하면 1만 8천 신령들이 있다고 하는데, 천지간에는 무수한 신령과 악령들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¹³⁾ 따라서 무속신앙은 다령숭배(多靈崇拜)이며, 다신론(poly-theism)적인 원시종교라 할 수 있다.

무속신앙에서 무신(巫神)에는 계층이 있는 것 같다. 지상신을 하나님(天神)으로 하고, 그 아래에 지신, 산신, 수신 등이 각기 특정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천상계는 천신을 비롯하여 일신(日神), 월신(月神), 성신(星神) 등이 각기 다스린다는 것이다. 지상계에는 지신, 풍신, 수신, 인신 등이 있으며, 지하계에는 십왕신(十王神)을 비롯한 여러 악령들과 악귀들이 있다고 한다.

무속신앙의 신관은 기계적으로 분화된 기능적 신관(機能的 神觀)이다.¹⁴⁾ 무신들은 각각의 직분을 담당할 뿐이지, 다른 신령의 영역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믿어 신령들 사이에 횡적관계는 거의 없다. 그리고 무신들은 초인적인 존재이지만 전지전능한 존재로 보지는 않는다. 무신들은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절대적이지 않고 한정되어 있다.

무속신앙에 따르면 인간은 영(靈)과 육(肉)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고, 생사화복(生死禍福)과 흥망성쇠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신령들의 작용에 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간이 죽으면 육체는 썩어 없어지지만, 영혼은 없어지지 않고 저승으로 간다고 믿는다. 인간의 영혼은 셋이 있는데, 사후에

12) 金泰坤, "韓國巫神의 種類", 국제대학논문집(1969), pp. 71-84

13) 상계논문

14) 文相熙, 전계논문, p. 40

하나는 하계(下界)로 가고, 하나는 묘지 속으로 가고, 또 하나는 가묘(家廟)의 위패(位牌)에 들어 간다고 한다.

무속신앙에 의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은 먼저 명부(冥府)에 가서 십대왕(十大王)을 거치면서 생전의 선악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선행자는 극락으로 가서 영생의 복을 누리고, 악행자는 지옥으로 보내져 무서운 형벌을 받는다고 한다.

사령(死靈)인 인신들은 조령(祖靈)과 원령(冤靈)으로 구분된다. 조령은 이승에서 선하게 살다가 간 사람과 유복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의 신령으로 선령(善靈)이 되고, 현세에서 악행한 사람과 원한이 많은 영혼은 사후에도 인간을 괴롭히는 악령(惡靈)이 된다고 한다. 죽은 사람의 영혼은 초상, 소상, 대상을 치르는 동안은 이승에 머물러 있다가 탈상을 하면 선령은 저승에 가고, 악령은 저승에 가지 못하고 원한이 풀릴 때까지 인간을 괴롭힌다고 믿는다. 그리하여 악령들에게는 영혼의 원한을 풀어주는 사령제(死靈祭)를 지내 저승으로 천도왕생(薦度往生)케 한다.

무속신앙의 신관은 권선징악(勸善懲惡), 기복적(祈福的), 주술적(呪術的)이라 할 수 있다. 무속의 권선징악은 사회적 관습에 순종하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칭찬을 받고, 이에 반하는 사람은 비난을 받는다. 무속신앙의 기복적 성격은 인간이 신령을 숭배하는 것이 신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숭배자 자신의 행복과 이익을 위한 것인 데에서 알 수 있다. 악령을 저승으로 보내려는 사령제(死靈祭)도 원귀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살아있는 사람의 행복을 위한 측면이 많다. 무속의 의식은 악령이 인간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인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신의 호의를 얻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복적이고 실리주의라 할 수 있다.

무속신앙은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라기 보다는 원시적인 주술적 종교현상이다. 인간의 길흉화복이 신령에게 달려 있다고 믿고, 곳거리로 그 소원을 성취하고자 한다. 무속의 곳거리는 의식화된 주술이고, 주술은 비합리적인 인과율(因果律)을 전제로 행해진다. 그리하여 주술은 불안에 대한 자기방어를 위한 투사라 할 수 있다. 주술적 신앙은 전근대적인 사고에서 발생하여 여러 미신이 나타나게 되고, 불신과 공포가 커질 수 있다.

그리하여 무속신앙은 인간이 인격을 완성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한계가 있다. 비과학적인 주술에 의하여 재난이나 불행을 파할 수 있고,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의 생활을 개척하는데 소극적일 수 있다. 인간이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주술에 의존하는 비합리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인간이 신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구원만을 기다리는 절대신을 맹신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전락할 수 있다.

한편 무속신앙은 인간의 역사성에 관한 의식이 매우 결핍되어 있다. 무속에서는 역사의 방향, 목적, 의미를 찾아 볼 수 없고, 동일한 일을 반복하는 무사(巫事)만 있을 뿐이다. 무속신앙에서는 인간이 역사의 주체가 되어 문명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기 보다는 주술에 의존하여 인간의 가치와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인간의 실존은 역사의 주체가 되어 새로운 현재를 창조하는데 의의가 있는데, 무속에서는 비역사적인 현상만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역사의 주체가 되는 미래지향적인 창조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여 인간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IV. 神人調化의 意義

1. 大巡思想의 神觀

대순사상에서 신은 타종교와는 달리 독특하고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다. 대순사상에서의 신관은 우리나라의 전통적 신관과 무속신앙의 신관, 그리고 기독교적 신관 등이 통합되어 있다. 이러한 신관을 형성하게 된 것은 강증산 상제가 동양의 유불도 사상(儒佛道 思想)은 물론, 서양의 기독교적인 사유체계도 수용하고 있으며, 동학과 무속신앙까지도 통합하여 교리체계를 구성한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대순사상의 신관은 기성 종교의 신관과는 달리 매우 합리적이며 체계적이라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순사상의 신관은 일신론적(一神論的)인 측면이 있다.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강증산 상제는 삼계(天地人)의 대권을 주재하는 절대신으로

구천에 있었는데, 조화로써 천지를 개벽하고 불노장생(不老長生)의 선경을 열어 진멸 지경에 빠진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강세(降世)하였다고 한다. 강증산 상제는 천상의 으뜸가는 절대적 권능의 소유자인 동시에 신명계와 인간계의 주재자인 조화주신(造化主神)이며 구원자로서 개벽장(開闢長)으로 숭배되고 있다. 강증산 상제만은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은 절대자적인 신으로 숭배하고 있다. 강증산 상제는 신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신중의 최고신으로 보고 있다.¹⁵⁾

둘째, 대순사상에서는 신과 인간은 동체(同體)로써, 신과 인간은 동일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이란 별다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죽으면 신이 된다는 신인즉일설(神人卽一說)의 입장을 갖고 있다. 인간은 신과 같은 고등정신인 영혼과, 동물적인 육체를 가진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은 신과 같은 존재이면서도 동물적인 속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신은 육체는 없고 정신만 있는 존재이고, 인간은 정신과 육체를 가진 존재이다. 이러한 면에서 인간은 완전한 신은 아니지만, 생존시에 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람에게 혼(魂)과 백(魄)이 있나니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후손들의 제사를 받다가 4대를 넘긴 후로 영(靈)도 되고 선(仙)도 되니라. 백은 땅으로 돌아가서 4대가 지나면 귀(鬼)가 되니라.¹⁶⁾

신이란 인간영체(人間靈體)로 실존했던 사람의 사후의 다른 이름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이란 인간과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영체(靈體)가 죽은 다음 신계(神界)에 들어가 신이 되는 존재로 보고 있다. 신과 인간은 동일한 근원을 갖고 있어, 신은 인간과 동일한 인격과 욕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인간의 신화(神化)는 인간의 인격수양과 도덕성 함양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이 생존시에 덕을 쌓고 훌륭한 업적을 남기면, 죽어서도 존귀한 신으로 존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순사상의 신들은 생존시의 이름을 그대로 신

15) 하늘도 뜯어 고치고 땅도 뜯어 고치고. 사람에게도 신명으로 하여금 가슴 속에 드나들게하여 다 고쳐 쓰리라. 전경, 교법 제3장 1절, p. 245

16) 전경, 교법 제1장 50절, p. 230

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생전에 큰 업적을 남긴 위인들은 사후에도 그대로 호칭하고 있다.

이러한 신관은 그리스 신화의 신관과 유사한 면이 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인간과 같이 성질과 결점과 이름을 가진다. 하나의 신은 다른 신들에 대하여 일정한 관계를 가지며, 중요한 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한다.¹⁷⁾ 신들은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새로운 명칭의 신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신의 진화는 결정적인 상태에서 끝나는 경우는 비교적 적다. 숭고한 신이라 하더라도 그의 신성(神性)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흡수함으로써 스스로 새로운 속성을 가지며 변화해 나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 신명은 사람의 생활태도와 능력에 적합한 임무를 부여하고 도와 준다고 한다. 신명은 인간이 노력을 하여 능력을 개발하면 보호하고 도움을 주지만,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신명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 간다고 한다. 그리하여 신명은 인간의 인격과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대순사상의 신관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덕을 쌓아야 한다는 도덕성과 생활윤리를 제시해 주고 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신은 항상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면 신의 도움을 받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마다 그 닦은 바와 기국에 따라 그 사람의 임무를 감당할 신명의 호위를 받느니라. 남의 자격과 공부만 추앙하고 부러워하고 자기 일에 해태한 마음을 품으면 나의 신명이 그에게 옮겨가느니라.¹⁸⁾

넷째, 우주 만물은 신의 조화에 의해서 존재하며,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은 인간에게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 존재하는 만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믿고 있다. 만물이 존재하는 것은 신의 작용이며, 신이 영향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한다.

17) Henri Bergson, *Les deux sources de la morale et de la religion*, 88e ed. (Paris :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58), 康英啓 譯,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서울 : 探求堂, 1985), p. 197

18) 전경, 교법 제2장 17절, p. 237

천지에 신명이 가득차 있으니 비록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를 것이며, 흙 바른 벽이라도 신이 옮겨가면 무너지지나니라.¹⁹⁾

이러한 신관은 과학적으로 실증되고 있다. 식물도 생각할 수 있고, 인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며, 우주와 교신하는 초감각적 지각(超感覺的 知覺)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²⁰⁾ 의식 수준이 매우 낮은 식물도 정신이 있으며 인간과 자연의 변화에 대해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각각의 신은 서로 다른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은 무수히 많으나 영적진화(靈的進化)의 차이에 따라서, 각기 다른 능력을 갖고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상의 모든 인간들의 인격과 능력이 각기 다른 것과 같이, 신들도 서로 다른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신이라 하더라도 강증산 상제가 예를 갖추는 신명이 있는가 하면,²¹⁾ 신에게 명령하여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신들도 있다. 즉 신은 자기 의지대로 살고자 하는 능력이 있는 인격신이 있고, 환경에 적응하여 존재하는데 의의가 있는 하위신들이 있다. 인격신으로는 신명과 신장 등이고, 풀이나 흙과 바람에 응한 신은 하위신이라 할 수 있다. 즉 신명계에 있는 여러 신들은 각각의 능력에 따라 자기 다른 신분과 능력을 갖고 있다.

여섯째,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의 현실세계와 신명계가 동시에 존재하고 직접적인 교류가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다. 신명계와 인간세계는 상호 감응관계(感應關係)에 있다는 것이다. 인간들이 척을 짓고 원한이 쌓여 싸움이 벌어지면, 조상신들 간에도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신명계에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이다. 인간사회에서 벌어지는 분쟁들은 그대로 신명계에 반영되어 조상신인 선령신(先靈神)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이 분쟁은 다시 인간세상에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신명계와 인간세계는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체계로 보고 있다. 신과 인간은 교류를 하기 때문에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은 본원적 동일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

19) 전경, 교법 제3장 2절, p. 245.

20) Peter Tompkins and Christopher Bird, *The Secret Life of Plants* (New York : Haper & Row, 1972)

21) “상제께서 대신명(大神明)이 들어설 때마다 손을 머리 위에 올려 예를 갖추셨다” 전경, 공사 제2장, 5절, p. 115

사람들 끼리의 싸움은 천상에서 선령신들 사이의 싸움을 일으키나니. 천상 싸움이 끝난 뒤에 인간 싸움이 결정되나니라.²²⁾

신명계는 시공을 초월하여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명들이 인간 세계와 공존하고 있는데 매우 혼란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 신명계가 혼란한 것은 인간 세상에서 원한을 품고 죽은 신명들이, 그 원한을 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명계와 인간세계는 서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신명계가 극도로 혼란하여 인간세계도 혼란 상태에 있다고 한다. 신도 인간과 같이 감성을 가지고 있으며, 원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사회에 나타나는 갈등과 분쟁, 그리고 이에 따른 혼란은 신명계의 대립과 투쟁에 원인이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인간세계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신명계에 쌓인 원한을 완전히 풀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곱째, 대순사상에 나타난 신은 그 속성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신에 대해 신명, 혼, 백, 선, 신장(神將), 귀신 등으로 부르고 있다. 이러한 신을 총칭하여 신명계라 하고 있다. 자손을 둔 신은 황천신(黃泉神)이라 하고, 자손을 두지 못한 신은 중천신(中天神)이라 하며²³⁾, 도통하고 죽은 신은 도통신(道通神)²⁴⁾, 문명을 개화한 문명신(文明神)²⁵⁾, 혼란한 세상을 바르게 하는 황극신(皇極神)²⁶⁾ 등이 있다. 이외에도 각 신의 역할이나 특성에 따라 군자신, 도로신, 만사신, 무극신, 문신, 백복신, 문신, 보은신, 상계신, 서신, 선영신, 아표신, 역신, 지방신, 척신, 천지신, 하계신, 행귀신 등 매우 많다.

그리고 신을 신명이라 하기도 하였는데, 신명은 개별적인 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속성을 가진 신집단(神集團), 또는 신의 세계 전체를 뜻한다. 신명으로는 천지에 있는 모든 신명을 뜻하는 천지신명, 동학운동을 하다가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동학신명, 도술을 부리는 도술신명, 서양에 있는 서양신명, 조선에 있는 조선신명 등이 있다. 신은 신장(神將)이라고도

22) 전경, 교법 제1장 54절, p. 231

23) 전경, 공사 제1장 29절, p. 109

24) 전경, 공사 제3장 15절, p. 136

25) 전경, 교운 제1장 9절, p. 155

26) 전경, 공사 제3장 22절, p. 140

한다. 신장으로는 괴질신장(怪疾神將), 귀곡신장(鬼哭神將), 기문신장(奇門神將), 도로신장(道路神將), 육정신장(六丁神將) 등이 있다.

대순사상에서 신관은 강증산 상제를 최고신으로 숭배하는 일원적(一元的) 이면서도, 신은 인간과 같은 인격을 갖고 있다는 의인간적 다신관(擬人間的 多神觀), 그리고 신과 인간은 동일한 근원을 갖고 있다는 신인동형적 신관(神人同形的 神觀)이라 할 수 있다.²⁷⁾ 이러한 신관은 우리의 전통적 신관과 무속신앙의 신관을 통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속신앙에서 경외와 신비의 대상이 되었던 신·선·귀와 같은 존재들은 인간의 사후에 인간이 탈바꿈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순사상의 신관은 무속신앙의 다신관과 유사하지만, 우리의 전통을 이어가는 사상적 맥락과 민중의 철학이 담겨진 신관이라 할 수 있다. 대순사상의 신관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어 온 신관을 새로운 차원에서 정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족 종교로서 신과 인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리하였다. 즉 우리의 전통적 신관이나 무속신앙의 신관을 통합하여, 인간의 도덕성과 생활윤리를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었다.

2. 神人調化의 意義

신인조화는 대순사상의 독특한 사상이며, 기존의 종교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개념이다. 신인조화에 있어서 독특성은 조화(調化)의 개념에 있다. 조화(調化)는 서로 모순됨이 없이 잘 어울린다는 조화(調和)와, 천지 자연의 이치에 따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다는 조화(造化)가 통합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²⁸⁾ 조화(調化)는 구성하는 요소들이 서로 잘 어울리며 협력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인조화의 개념과 의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신인조화는 신과 인간을 음과 양으로 인식하고, 신과 인간이 공존하면서 협력관계를 갖고 새로운 것들을 창조한다는 의미이다. 신인조화는 인

27) 盧吉明, “神과 人間의 원한을 抹消한다”, 趙明基 외 33인, 韓國思想의 深層研究 (서울: 宇石, 1990) p. 430

28) 金正泰, “大巡眞理의 宗旨에 관한 研究”, 大巡思想論叢, 제1집(大巡思想學術院, 1996), pp. 342-343

간을 양으로 신을 음으로 이해하고, 인간과 신이 각각의 덕을 결합해야 한다는 음양합덕(陰陽合德)의 실현을 의미한다. 음양합덕은 음과 양이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덕을 상대로부터 보완하여 조화를 이루고, 완전함을 추구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이다.²⁹⁾ 음양합덕은 음과 양이 각기 갖고 있는 덕을 상합하여, 우주와 인간사회의 화합과 안정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사상적 의의를 갖고 있다. 전경에서 “신이 음이 되고 사람이 양이 되어, 음양이 서로 합한 연후에야 변화의 도가 있으리라(神爲陰 人爲陽 陰陽相合然後 有變化之道也)”³⁰⁾한 것은 신과 인간이 상합하여야 우주와 인간사회가 바람직하게 변화될 수 있고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신만 있고 사람이 없으면 신이 의탁할 곳이 없어지고, 사람은 있는 데 신이 없으면 인도할 수 없으므로, 신은 인간을 기다리고 인간은 신을 기다리게 된다고 한다. 즉 신과 인간이 상통하고 화합하여야만이 천도(天道)가 이루어지고, 신이 하고자 하는 일과 인간의 일이 모두 성취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신과 인간이 화합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고 한다.

신은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의탁할 곳이 없고, 사람은 있는데 신이 없으면 인도할 곳이 없게 되니, 신과 인간이 화합하여야 만사가 이루어지고, 신과 인간이 결합하여야 백가지 공사를 이룰 수 있으며, 신명이 사람을 기다리고 사람이 신명을 기다리며, 음양이 상합하고 신과 인간이 상통한 후에야 천도가 이루어지고 도가 완성되며, 신의 일이 이루어져야 인간의 일이 이루어지고, 인간의 일이 이루어져야 신의 일도 이루어진다. 31)

그리하여 신인조화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정음정양(正陰正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이 인간 보다 상위의 위치에서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은 신에게 복종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신과 인간이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신과 인간의 관계가 수직적인 불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평등관계에서 서로 도와 주는 상생적 관계를 갖추어야 한다.

29) 拙稿, “陰陽合德의 意義와 思想的 價値”, 大巡思想論叢, 제2집(大巡思想學術院, 1997), pp. 241-295

30) 전경, 재생 43절, p. 309

31) 神無人後無托而所依 人無神前無導而所依 神人和而萬事成 神人合而百工成 神明
 俟人人俟神明 陰陽相合神人相通然後天道成而之道成 神事成而人事成 人事成而神
 事成 전경, 교운 제2장 42절, p. 207

신과 인간이 공생공존하면서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한다는 신인조화는 대순사상의 기반이며, 동시에 모든 종교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라 생각한다. 신인조화는 대순사상이 실현하고자 하는 신앙의 목표이며, 다른 종교는 물론 모든 인류가 실현해야 할 가치라 할 수 있다.

둘째, 신인조화는 인간이 신과 같은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전제에서 형성된 사상이다. 신인조화는 신은 진리의 표준이며, 인간은 진리에 합치될 수 있는 존재라는 가정에서 성립한 사상이다.³²⁾ 신인조화는 인간이 신과 같은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가진 존재로 변화된다는 의미로서, 이를 지상신선이라고 한다. 인간이 신과 같이 초월적인 능력을 갖는 존재로 새롭게 변신한다는 신선관념(神仙觀念)은, 인간의 잠재된 능력을 무한히 개발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제기된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이 참된 성품을 갖고 옳은 일을 지성으로 하면,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性)은 마음이 밝아져야 천품성을 깨닫는다(開心見性)” 하였으니, 참된 성품을 살피서 허망한 일을 하지 않는(眞實無妄) 지성(至誠)에 이르면 신과 같아지니라.³³⁾

셋째, 신인조화는 인간이 신의 뜻을 알 수 있고 신의 뜻에 따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사상이다. 신인조화는 사람이 신의 뜻을 존중하여야만이 인류가 평화롭고 안정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세상의 완성은 인간의 성숙만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실현될 수 있다고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신의 뜻을 신도(神道)라고 하는데, 신의 뜻인 신도를 따르는 것은 진리라는 것이다. 신인조화는 인간이 신의 의지인 신도를 존중할 때 세상은 바르게 인도될 수 있다는 신념체계에서 형성된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신인조화는 인간이 신의 뜻을 알고 신의 뜻에 따른 행위를 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류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편리한 생활

32) 鄭大珍, “大巡思想研究를 위한 提言”, 大巡思想論叢, 제1집 (大巡思想學術院, 1996), p. 5

33)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서울 :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p. 75

을 하고 있지만,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여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위기는 인간이 신의 뜻과는 달리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고 무분별하게 개발한 데에 원인이 있다. 인간이 신의 뜻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게 되어, 인간 사회는 극도의 무질서와 혼란상태가 되었으며 진멸의 위기에 빠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이 신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영적 세계를 경시하고 물질적 욕구만을 추구하는 데에서 파생되는 인간성 상실 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신도를 따르는 생활은 정신적으로 보다 자유롭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넷째, 신인조화는 인간은 신의 뜻인 신도를 따라야 하지만, 신도 인간을 존중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신인조화는 신의 뜻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신과 같이 또는 신 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존중해야 한다는 인존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인간을 신의 피조물(被造物)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보다 더 존중해야 할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다. 신인조화는 인간을 신과 공존할 수 있는 존재이며, 오히려 신이 인간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신인조화는 인간이 신의 지배와 인도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자의지(自意志)를 갖고, 신을 인간의 뜻에 따라 지배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리하여 신인조화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던 신으로부터 인간의 해방을 의미한다. 인간을 신의 부속물 또는 구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인격을 갖춘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다.

인간은 다른 생물들과는 달리 신과 같이 자기 의지를 갖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이 죽으면 혼과 백은 신이 되지만, 생존한 상태에서도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다. 인간은 신과 같은 고등정신인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의 뜻을 파악하고 신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신도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을 위하지 않는다면 존재가치가 없고 존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신인조화가 추구하는 인간존중은 종교적 의미만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적 의미를 갖고 있다.

다섯째, 신인조화는 모든 종교들을 통합할 수 있는 사상이라 생각한다. 종교인들은 다른 신념을 갖고 있는 다른 종교에 대해 적대적이고 배타적인 성

향이 있다. 인간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유사성(類似性)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유사성은 규범적인 가치판단으로는 결정할 수 없다. 종교에 있어서도 이질적인 종교라 하더라도 유사성이 있고 우월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종교는 다양한 사회적인 문화기능의 하나이기 때문에, 인간을 돕고 사회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절대신을 숭배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인간의 신념에 의한 것이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시도 그것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인간의 태도와 능력을 전제로 한다.

신학적으로 볼 때 종교적 신앙은 고정되고 정체된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 종교인들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 할 때,³⁴⁾ 타종교의 신념체계도 존중해야 한다. 신인조화는 타종교에 대해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교류하여 통합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종교는 근본적으로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숭배하는 각각의 신들도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종교나 종교에서 숭배하는 신들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즉 인간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종교는 참된 종교가 될 수 없고, 인간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신은 숭배의 가치가 없는 신이다. 신들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한다면, 신과 인간이 공존하고, 인간이 신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 명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순사상의 신인조화는 이질적인 문화와 종교를 통합할 수 있는 신앙체계를 제시해 주고 있다. 대순사상은 세계의 각 민족들이 자기들의 생활 경험을 전승하여 독특한 사상을 형성하였는데, 이러한 이질적인 문화가 다른 민족의 문화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민족들 간에 시비와 분열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각 민족들의 고유한 생활 경험에서 형성된 사상과 문화가 다른 민족들과 화합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의 모든 족속들은 각기 자기들의 생활경험의 전승에 따라 특수한 사상을 토대로 색다른 문화를 이룩하였으되 그것을 발휘하게 되자, 마침

34) Joachim Wach, *The Comparative Study of Religions* (Columbia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8), p. 40

내 큰 시비가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상제께서 이제 민족들의 제 각기 문화의 정수를 걷어 후천에 이룩할 문명의 기초를 정하셨도다.³⁵⁾

상제께서는 모든 도통신과 문명신을 거느리고 각 민족들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갈래 문화의 정수(精髓)를 뽑아 통일하시고 물 썰틈 없이 도수를 짜 놓으시니라.³⁶⁾

대순사상에서는 세계의 각 민족들의 이질적인 사상으로 과생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민족들의 문화의 정수를 선정하여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천지공사이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신명의 원한을 풀어 주는 해원상생을 통해 조화하고, 천지도수의 조정과 천지개벽을 하고 선경을 세우겠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대순사상은 신명계를 통일하여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겠다는 이념이 담겨져 있다. 기성 종교들은 인간세계의 불안과 갈등을 해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질적인 신념체계를 갖고 있는 종교들이 적대적이기 때문에 서로 원한을 쌓게 되며, 각 민족과 문명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보편성(普遍性)이 없다는 것이다. 동서양의 각 국가와 민족의 갈등과 분쟁은 각 국가와 민족이 숭배하는 지방신(주재신)들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방신들은 지상의 일정한 지역을 분담하여 관장하고 그 지역만을 교도하는 신명들이다. 각 민족의 지방신들은 그 민족의 지도자로서 활동하는 인격신이다. 각각의 주재신들이 대립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신봉하는 신념체계만 고집하여 신명계들이 갈등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는 각 민족이 숭배하는 지방신과 종교들을 새롭게 통합할 수 있는 통일신단(統一神團)을 구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일신단의 구성은 신명계가 서로 대립적인 데에서 과생되는 원한을 풀어주는 방법이다. 이질적인 성질을 갖고 대립하는 신들을 통합하여 해원상생(解冤相生)하게 하면, 각 국가와 민족의 주재신들이 보은(報恩)을 할 것이라는 가정을 한다. 지방신들을 통합하는 것이 통일신단이고, 통일신단을 운영하는 것이 조화정부가

35) 전경, 교법 제3장 23절, p. 254

36) 전경, 예시 12절, p. 313

다. 조화정부를 수립하여 신명계가 화합하고 상생을 하게 되면, 인간세계도 평화롭고 안정될 것이라고 믿는다. 지방신들을 통합한 조화정부가 신명계를 상호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야 인류사회가 안정될 수 있고 이상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신인조화는 완전한 이상사회를 건설하는 하나의 방안이다. 신인조화는 천리(天理)와 인사(人事)를 합일시켜 이상세계를 건설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천리는 하늘의 뜻으로 곧 신의 뜻이고, 인사는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말한다. 신인조화는 하늘의 뜻과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상합하여 조화를 이루려는데 기본적 의의가 있다. 신과 인간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게 되면, 이상적 사회가 건설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절대신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기독교의 신관에서도 신인조화의 이념은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였다고 할 때, 인간은 하나님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현세에서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서 인간을 구원하였다는 것은, 인간이 창조주와 같은 모습과 능력을 갖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죄를 지은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신인조화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적 신인조화는 신비주의적(神秘主義的)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신비주의는 종교 경험의 가장 전형적인 예로써 신비적인 몰아경험(沒我經驗)이 주는 느낌과 의식으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비주의는 “인간이 신성한 힘이나 신성한 존재와의 합일을 추구하는 종교적 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³⁷⁾ 이념형적인 형태의 신비주의는 신성한 존재와의 합일과 같은 경험을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비주의가 항상 완전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자아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 신비주의는 본인이 직접 경험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몰아경험을 듣고 형성되기도 한다. 그리고 신비주의는 인간이 주체적인 사고와 가치판단에 의하여 신앙생활을 하기 보다는 무의식적, 또는 맹목적인 상태에서 믿을 우려가 있다.

37) Peter Berger, *The Social Reality of Religion* (Penguin University Books, 1973), 이양구 역, *종교와 사회*(서울 : 종로서적, 1989), p. 77

기독교적인 신인조화는 신과 인간이 불평등한 관계이다. 피조물인 인간에 대해 하느님은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고, 인간은 구원을 받는 존재로서 신과 인간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 다만 인간은 신의 뜻에 무조건 복종하고, 신의 은총을 기다리는 객체적 존재일 뿐이다.

기독교적 신인조화는 인간의 욕구를 억압할 수 있다. E. Fromm은 인간의 욕구를 ① 관계의 욕구, ② 초월과 창조성의 욕구, ③ 근원 추구의 욕구(the need for rootedness), ④ 헌신의 욕구 등을 제시하고 있다.³⁸⁾ 초월과 창조성의 욕구(the need for transcendence and creativeness)는 인간은 이성과 상상력을 사용하려는 욕구와, 그것들을 창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단순한 피조물의 수동적 역할을 초월하고 싶은 욕구이다. 신의 뜻을 일방적으로 따르라는 일방적인 신인조화는, 인간이 자기 의지를 능동적으로 구현하려는 욕구를 억압할 수 있는 것이다.

기독교의 신비주의와 불평등한 신인조화는 대순사상의 신인조화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대순사상에서의 신인조화는 인간이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에 의한 종교학적인 신념체계라 할 수 있다. 신의 뜻이 거룩하고 인간이 세계를 보다 밝은 이상사회로 건설해 갈 수 있다는 주체적 의식에서 신인조화를 강조하는 것이다.

대순사상의 신인조화는 인간을 위한 것이며, 인격완성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종교는 인간과 관련되어야만이 가치가 있으며, 인간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어야만 한다. 종교는 본질적으로 외부로부터 부과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동화작용이어야 하며, 인간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확대시키는 것이어야만 한다. 종교는 인간의 삶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종교가 절대신만을 강조하고 인간을 구원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인간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인간의 삶을 제한하게 된다. 종교의 이러한 역기능적 측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는 대순사상의 신인조화적 접근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38) E. Fromm, *The Sane Society* (London, 1956), 金樹澈, 道德과 倫理(서울 : 敎文社, 1987), pp. 214-215

IV. 神人調化의 思想的 價値

신인조화의 의의는 종교적 측면만이 아니라, 인간 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인조화가 인간을 신과 같이 존중하며, 신의 뜻과 인간의 행위가 상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신인조화는 인간 생활의 본질적 가치가 될 수 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물론 신도 인간을 위해 하며, 인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고 한 것은 종교사적으로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인조화는 인간을 존중하는 동시에 인간의 인격완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신과 인간의 조화는 완전한 조화를 추구하며,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신인조화의 사상적 가치를 인간존중, 인격완성, 완전한 조화, 이상사회의 건설 등으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1. 人間尊重

신인조화가 갖는 사상적 가치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존중사상이다. 인간존중은 단군신화에서부터 제시되어 왔지만, 상징적으로만 인식되었지 실제의 사회제도와 관습에서는 실제적으로 구현되지 않았다. 단군신화는 경천사상(敬天思想)으로 제정일치(帝政一致)를 중시하였다. 천신제(天神祭)와 같이 하늘을 숭배하는 종교적 경험이 유지되어 왔으나, 인간이 하늘(신) 보다 중요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식은 없었다.

대순사상에서는 인존시대라하여 우리의 전통적인 신인관계(神人關係)에 있어서 인식의 대전환을 가져 왔다.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³⁹⁾ 선언하여, 인간을 우주와 역사의 중심적 존재로 인정하고 있다. 대순사상이 강조하는 인존사상은 모든 인간은 평등해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사회적 갈등과 불안의 원인을 원한으로 파악하고, 원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존윤

39) 전경, 교법 제2장 56절, p. 244

리(人尊倫理)를 제시하고 있다. 인간사회가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쌓인 원한의 해소와, 인간에게 주어지는 불평등한 모든 차별과 억압을 배제하는 인존윤리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신이 인간을 지배한다는 선천의 세계에서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은 신(하늘)이 도와 주어야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지만, 후천 세계에서는 뜻은 하늘에서 세우고 그 실현은 인간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식은 인간을 고귀한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며, 인간 능력의 개발과 발현에 대한 무한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선천에는 모사는 재인(在人)하고 성사는 재천(在天)이라 하였으나, 이제는 모사는 재천하고 성사는 재인이니라.⁴⁰⁾

신인조화는 모든 인간은 신과 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동등하게 존중해야만 한다고 한다. 인간은 누구나 신과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 신분이나 성별 등에 의해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반상관계(班常關係)를 비롯한 적서(嫡庶)의 차별과 남녀 불평등을 타파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반상의 구별로 차별을 하는 것은 죽은 조상신들의 뼈를 깎는 것과 같이 보복이 따르고, 망하게 될 것이라 한다. 양반의 차별적인 잘못된 인습을 버리고 천인(賤人)을 우대하는 평등한 사회가 되어야 평화로운 새시대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후천세계에서는 여자의 존재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능력을 인정받아 남존여비의 폐습이 없어질 것이라 하였다.

지금은 해원시대니라. 양반을 찾아 반상의 구별을 가리는 것은 그 선령의 뼈를 깎는 것과 같고 망하는 기운이 따르나니라. 그러므로 양반의 인습을 속히 버리고 천인을 우대하여야 척이 풀려 빨리 좋은 시대가 오리라.⁴¹⁾

후천에서는 그 닦은 바에 따라 여인도 공덕이 서게 되리니 이것으로써 옛부터 내려오는 남존여비의 관습은 무너지리라.⁴²⁾

40) 전경, 교법 제3장 25절, p. 257

41) 전경, 교법 제1장 9절, p. 222

신인조화의 인간존중은 인간주의(humanism)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인간주의는 “인간다운 것의 실재”를 강조하며, 개성의 존중과 현세의 가치를 의식하는 데에 근거한 사상이다. 따라서 인간주의의 과제는 자연으로부터의 인간의 자기발견, 종교적 제도의 속박으로부터 인간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회복하는 것이며, 온갖 반인간주의적(反人間主義的) 전통과 인습으로부터 스스로를 되찾아 인간의 인격과 위치를 밝히는 일이다.⁴³⁾ 인간주의의 본질은 인간의 본래성을 구속하는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와, 인간성의 회복과 본연의 인간성에 대한 상호간의 존중을 뜻한다.

대순사상의 신인조화는 신에 종속되어 온 인간의 본질을 확인하는 것이며 자주성을 신장하는 동시에, 반인간주의적인 전통과 인습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사상이다. 관존민비와 남존여비 등 반인간주의적인 전통이 사회적 관습으로 뿌리박혀 있는 가운데, 인간의 평등과 인권존중을 제시한 것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사상사적 대전환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人格完成

신인조화는 인간의 인격완성을 의미한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양자를 동시에 발전시켜야 한다. 인간의 영혼은 정신적 영역으로서 인격을 의미한다. 영혼의 발전은 곧 인격완성을 뜻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의 영혼은 죽어서 신이 된다고 하는데, 모든 영혼이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전에 도를 닦은 자만이 신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도를 닦은 자는 죽어도 정혼이 흩어지지 않고 하늘에 올라 신이 되지만, 도를 닦지 않은 자의 정혼은 흩어지고 만다는 것이다.

도를 닦은 자는 그 정혼이 굳게 뭉치기에 죽어도 흩어지지 않고 천상에 오르려니와 그렇지 못한 자는 그 정혼이 희미하여 연기와 물거품이 삭듯하리라.⁴⁴⁾

42) 전경, 교법 제1장 68절, p. 233

43) 金樹澈, 전계서, p. 149

44) 전경, 교법 제2장 22절, p. 237

신인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이 신과 같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 인간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추는 인격을 도야하지 않으면, 신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후(死後)에 신이 되지 못한다. 인간이 신과 같이 존중받고 죽어서 신이 되려면, 인격을 완성하여 도덕성을 고양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도를 닦고 인격을 완성하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받고 존중받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 인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신들로부터도 존중받을 수 있다고 한다. 신의 도움이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받으려면, 자립적인 생활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립능력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신망을 받을 수 없고, 신으로부터도 존중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인망(人望)을 얻어야 신망(神望)에 오르고 내 밥을 먹는 자라야 내 일을 하여 주느니라.⁴⁵⁾

신인조화사상은 인간의 길흉화복은 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의 노력과 마음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며, 인간이 덕을 쌓고 마음을 바로 가질 때 신이 도와 준다고 한다. 그리하여 “죄가 없어도 있는 듯이 잠시라도 방심말고 조심하라”⁴⁶⁾, “마음을 깨끗이 가져야 복이 이르나니 남의 것을 탐내는 자는 도적의 기운이 따라 들어 복을 이루지 못하나니라”⁴⁷⁾ 하여 복은 신명이 주는 것이기 보다는 인간이 마음을 정화하는 데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인격을 도야하여 덕을 쌓고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신명들이 도와 주어 인간은 행복해 질 수 있지만, 부당한 일을 하거나 마음을 바르게 갖지 않아 비도덕적인 일을 하면 신명이 이를 알고 바르게 잡아 피해를 입을 것이라 가르치고 있다. 사람이 덕을 쌓지 않고, 능력에 맞지 않는 일에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한다.

45) 전경, 교법 제1장 25절, p. 225

46) 전경, 교법 제1장 36절, p. 227

47) 전경, 교법 제1장 21절, p. 225

신명은 탐내어 부당한 자리에 앉거나 일들을 편벽되게 처사하는 자들의 덜미를 쳐서 물리치나니라. 자리를 탐내지 말며 편벽된 처사를 삼가고 덕을 닦기를 힘쓰고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라. 신명들이 자리를 정하여 서로 받들어 앉히리라.⁴⁸⁾

인간이 인격을 완성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화합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다. 인간이 화합적인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룰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신명들이 각 가정을 찾아가서 가정의 화목상태를 파악하고 신명이 도와 줄 것인지, 도와 주지 않을 것인지를 평가할 것이라 한다. 가정이 화기(和氣)를 잃으면 신명들이 도와 주지 않고, 떠날 것이기 때문에, 신명의 도움을 받아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화기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한다.

……이제 천지신명이 운수자리를 찾아서 각 사람과 각 가정을 드나들면서 기국을 시험하리라. 성질이 너그럽지 못하여 가정에 화기를 잃으면 신명들이 비웃고 큰일을 맡기지 못할 기국이라하여 서로 이끌고 떠나가리니 일에 뜻하는 자가 한시라도 어찌 감히 생각을 소홀히 하리오.⁴⁹⁾

한편 대순사상에서는 남에게 척을 짓지 말고 원한을 사지 말라고 한다. “속담에 ‘무척 잘산다’ 이르나니 이는 척이 없어야 잘 된다는 말이라. 남에게 억울한 원한을 짓지 말라. 이것이 척이 되어 보복하나니라. 또 남을 미워하지 말라. 사람은 몰라도 신명은 먼저 알고 척이 되어 갚나니라”⁵⁰⁾ 하였다.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지면 본인은 모른다 하여도, 그 사람의 신명은 먼저 알고 원한을 갖고 보복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척을 짓거나 원한을 사지 않아야 하며, 나아가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 주라고 한다. 남에게 척을 짓지 않거나 원한을 사지 않는 것은 낮은 수준의 인격이고, 남을 도와 주는 것은 고차원의 인격이라 할 수 있다. 남에게 베풀 것이 없다면 남을 헐뜯지 말고 좋은 말이라도 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자기만이 잘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잘 되도록 도

48) 전경, 교법 제1장 29절, p. 226

49) 전경, 교법 제1장 42절, pp. 228-229

50) 전경, 교법 제2장 44절, p. 242

와 주면, 자신도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남을 헐뜯게 되면 그 사람만이 아니라, 자신도 화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즉 인간이 신과 대등한 수준으로 존중받기 위해서는, 도덕성 함양과 윤리적으로 성숙한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너희들은 아무 것도 베풀 것이 없는지라. 다만 언덕(言德)을 잘 가져 남에게 말을 선하게 하면 그가 잘 되고 그 여음이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르고, 남의 말을 악하게 하면 그에게 해를 입히고 그 여음이 밀려서 점점 큰 화가 되어 내 몸에 이르나니 삼가할 지니라”⁵¹⁾

……남을 잘 말하면 덕이 되어 잘 되고 그 남은 덕이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르나, 남을 헐뜯는 말은 그에게 해가 되고 남은 해가 밀려서 점점 큰 화가 되어 내 몸에 이르나니라.⁵²⁾

윤리적으로 성숙한 인간은 도덕적이하고자 하는 인격적 결단을 하는 사람이며, 도덕적 원리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도덕적 원리를 실천하고자 하는 인간은 도덕적 행동을 단순한 욕망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성찰하고 정당한 근거에 기초한 타당성에서 선택한 것이다. 인격이 완성된 인간은 우주적 보편적 원리 위에서 개인의 상황과의 역학관계(力學關係) 안에서 양심의 결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피로 피를 씻는 것과 같으니라”⁵³⁾ 하여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원한을 갖고 피해를 준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반성하고 포용하라고 한다. 다른 사람과 다투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내지 말고, 원수를 은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신명의 도움을 받고 복을 받게 된다고 한다.

트집을 잡고 싸우려는 사람에게 마음을 누그리고 지는 사람이 상등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니라. 분에 이기지 못하여 어울려 싸우는 자는 하등 사람이니 신명의 도움을 받지 못하리라. 어찌 잘되기를 바라리오.⁵⁴⁾

51) 전경, 교법 제2장 50절, p. 243

52) 전경, 교법 제1장 11절, p. 223

53) 전경, 교법 제1장 34절, p. 227

불의로써 남의 자제를 유인하지 말며 남과 다투지 말며 천한 사람이라 천대하지 말며 남의 보화(寶貨)를 탐내지 말라. 보화라는 글자 속에 낭패(狼狽)라는 패자가 들어 있나니라.⁵⁵⁾

원수의 원을 풀고 그를 은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도 덕이 되어서 복을 이루게 되나니라.⁵⁶⁾

대순사상은 인격을 완성하여 자율적 인간이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자율적 인간은 도덕적 자율의 수준을 향상시키며, 알고 있는 선(善)과 실제로 선을 행하는 차이를 좁히는 사람이다.⁵⁷⁾ 자율적 인간은 선에 대한 지식과 행위가 일치하는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대순사상에서는 참다운 인격은 도를 닦고 덕을 쌓는 것만이 아니라, 생활에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인간은 지식을 알기만 해서는 효용이 없고 실행하여야만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모든 일을 알기만 하고 쓰지 않는 것은 차라리 모르는 것만 못하리라……”⁵⁸⁾하여, 실행을 강조하고 있다. “사람이 옳은 말을 듣고 실행치 않는 것은 바위에 물 주기와 같으니라”⁵⁹⁾하여, 옳은 일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한다. 따라서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과 양심에 따른 실천적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이 적은 것은 한마음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데 원인이 있으니, 자기 일에 정성을 다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한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안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한 마음을 갖고 정성을 다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이제 범사에 성공이 없음은 한 마음을 가진자가 없는 까닭이라. 한 마음만을 가지면 안되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무슨 일을 대하던지 한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을 한할 것이로다. 안되리라는 생각을 품지말라.⁶⁰⁾

54) 전경, 교법 제1장 55절, p. 231

55) 전경, 교법 제1장 38절, p. 227

56) 전경, 교법 제1장 56절, p. 231

57) John M. Rich, *Education and Human Value* (Menlopark, California. : Addison Wesley, 1968), p. 115

58) 전경, 교법 제3장 28절, p. 255

59) 전경, 교법 제1장 23절, p. 225

60) 전경, 교법 제2장 5절. pp. 234-235

그리하여 “마음은 성인의 바탕으로 닦고 일은 영웅의 도락을 취하여야 되느니라”⁶¹⁾하여, 마음을 닦는 일을 지성으로 하고, 어떠한 일을 할 때와 도덕적 행위를 실천할 때에는 영웅과 같이 큰 마음을 갖고 적극적으로 실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이러한 인격완성을 위해서는 수도(修道)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대순사상의 수도는 불교의 선(禪)이나 고립적인 수행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무자기(無自欺)를 실천하여 정신개벽(精神開闢)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대순사상의 수도는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인격을 완성하고, 완전한 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3. 完全한 調和

신인조화는 음양합덕(陰陽合德)의 구체적 실현이다. 신인조화의 음양합덕적 의미는 음인 신과 양인 인간이 상합하여 완전한 조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음과 양인 신과 인간이 각기 갖고 있는 고유의 덕을 통합하는 합덕이 이루어져야 가치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진리의 표준인 신과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인간이 조화를 이루어야 신의 뜻을 실현할 수 있고,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일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화는 인류가 출현한 이래 추구해 온 가치이면서도, 이상적으로 실현된 적이 거의 없었다. 조화란 관련된 요소들이 어떤 부분으로 편중되지 않고 적절하게 배분되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⁶²⁾ 신인조화도 신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 안정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신인조화는 신과 인간간의 공감적 이해(共感的 理解)라 할 수 있다. 공감적 이해란 자기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여 공통부분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인조화를 신과 인간의 공감적 이해로 볼 때, 신과 인간이 각각 상대의 존재와 뜻을 이해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1) 전경, 교법 제1장 23절, p. 225

62) 拙稿, 前揭論文, p. 273.

신인조화는 신과 인간의 존재방식이 다르고 지향하는 측면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인간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無神論)의 입장에 있어도, 신의 뜻은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신론자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도 생활하는데 있어서, 도덕적이고 양심에 의해 산다고 하면 넓은 의미에서 신인조화를 실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은 성스럽고 고귀한 존재로서 정의의 상징이고, 인간에게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신인(神人)이라 존경하고 있는데, 신인과 같이 생활하는 사람은 신인조화를 실천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사회생활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어서 조화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즉 인간의 욕구는 다른 사람들과의 욕구와 충돌하게 되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들은 생존을 위해, 그리고 보다 향상된 생활을 위해서 경쟁을 하여 왔다. 인간의 욕구의 충돌과 경쟁은 개인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과 집단, 조직과 조직, 그리고 국가와 국가간에도 나타나게 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경쟁하게 되고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는 갈등과 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인류의 역사는 화합과 협력 보다는 투쟁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신인조화는 투쟁의 인류사에 있어서 화합과 조화를 강조하는 사상이다. 신인조화는 신과 인간의 조화만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과의 조화, 인간과 인간과의 조화를 상정할 수 있다. 신인조화사상은 천인합일(天人合一)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써 하늘과 인간을 동일한 가치로 존중하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강조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났고 자연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는 인간생활에 있어서 자연적 질서를 적용하는 것이다. 신인조화는 인간이 자연적 법칙과 원리를 존중하고, 자연적 질서를 인간사회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인조화는 인간과 인간의 조화도 강조한다. 사회의 불안과 긴장을 해소하여 사회안정과 평화를 가져 오기 위해서는 신인조화와 같은 조화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인간이 관계하는 모든

영역과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인간이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영적 존재인 신과 상합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들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관계하는 모든 사람과 집단, 조직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만드는 조화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신인조화와 같은 조화가 더욱 필요하다.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나타나는 각종 문제와,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욕구 등으로 갈등과 부조화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는 인간들이 상호 신뢰하지 못하고 지나친 경쟁을 하는 데에 주요 원인이 있다. 따라서 인간사회의 심화되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인조화의 조화정신을 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해 나가야 하겠다.

4. 理想社會 實現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상을 추구하고 있다. 인간은 현재의 상태에서 보다 향상된 삶을 지향하여 왔으며, 바람직한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모든 인간은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기 보다는 보다 발전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한다. 이러한 향상된 생활을 하려는 것은 인간의 욕구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성장과 발전은 욕구를 실현하려는 의지와 노력의 소산이며, 인류의 문명과 문화도 인간의 욕구를 실현하려는 과정에서 발전된 것이다. 인간이 보다 가치있는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가 문화와 문명의 발전을 가져 왔다.

인간의 욕구는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여러 이론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욕구는 단계가 있다고 한다. Abraham H. Maslow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하위의 욕구에서 상위의 욕구로 상승된다고 한다.⁶³⁾ 즉 인간은 하위의 욕구가 충족되면, 보다 높은 다음의 욕구가 발생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Abraham H. Maslow는 인간은 모든 생물의 기본적

63) Abraham H. Maslow, "The Theory of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July, 1943), pp. 370-396

욕구인 생리적 욕구에서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등으로 상승된다고 한다. 자아실현의 욕구는 인간이 지향하는 최상의 욕구로서 이상이라 할 수 있다. 자아실현의 욕구는 인간이 도덕적 자율성을 즐기며, 자신의 행위안에서 사상과 행동, 이성과 감정, 이지적인 것과 의욕적인 것들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욕구계층설(欲求階層說)은 개인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집단적인 인간생활인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하위의 욕구에서 상위의 욕구로 상승된다. 사회적 차원의 욕구도 모든 구성원들의 경제적·심리적 안정의 욕구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한다. 사회적 차원의 욕구 중에서 최상의 욕구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만족스러운 최상의 삶을 영위하는 이상사회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이상사회는 개인의 욕구가 완전한 상태로 충족되어 최고의 행복감을 누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상사회는 모든 인간이 자아실현을 한 상태로 최고의 만족감을 갖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인간이 지향하는 이상사회는 실현된 적이 없다. 본래 이상적(유토피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상태와는 일치하지 않는 현실초월적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하여 유토피아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파악하기도 한다.⁶⁴⁾ 이상적이라는 것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망하는 공간과 시간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욕구불만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상사회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상태라 하더라도 인간의 소망과 욕구를 표출한 그 자체로도 큰 의의가 있다. 현실사회가 혼란하고 무질서한 상태에서도 이상사회를 설정한다는 것은 인류에게 희망을 주며,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하고, 현재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상사회는 종교적 내세상태(來世狀態)로 상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대순사상에서도 이제까지의 세계를 선천세계라 하고, 앞으로 전개

64) Karl Mannheim, *Ideologie und Utopie*, (Verlag G. Schulte-Bulmke Frankfurt : Main, 1952), 임석진 역,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서울 : 청아출판사, 1991), pp. 263-277

될 사회를 후천세계라 한다. 후천세계는 인류의 이상사회로서 선경이라고도 한다. 선경은 다른 종교의 내세관(來世觀)인 극락이나 천당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으나, 대순사상에서 제시하는 후천세계는 극락이나 천당과는 다른 독특한 내세관이다. 극락이나 천당은 인간이 사후세계(死後世界)에서 영생을 희구한 내세관이지만, 선경은 현실 세계를 말한다.

후천세계인 선경은 우주와 인간세계가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선경에서는 인간의 모든 번뇌와 원한이 없어지고, 빈부의 차별과 각종 재난과 재앙이 없어질 것이라 한다. 선천세계에서 불행하고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존귀하게 되고, 권세와 부귀를 누리던 사람의 신분과 지위가 낮아져 참된 평등사회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불사(不老不死)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⁶⁵⁾

후천에서는 약한 자가 도움을 얻으며 병든 자가 일어나며 천한 자가 높아지며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을 것이요. 강하고 부하고 귀하고 지혜로운 자는 다 스스로 각일지라.⁶⁶⁾

대순사상에서는 선천세계가 선경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서양의 물질문명과, 상극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서양의 물질문명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어, 천리(天理)를 무시하고 자연을 정복하여 모든 죄악이 커져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문란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서양의 물질문명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지 않고, 인간의 욕구에 따른 자연정복과 물질만을 숭상하여 각종 죄악이 만연되었고, 신도의 권위를 떨어 뜨려 혼란에 빠져 있다고 한다.

65) 전경, 예시 81절, pp. 336-337

66) 전경, 교법 제2장 11절, p. 236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 딴 것이다.」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67)

그리고 세계의 모든 인류는 각기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기 보다는 경쟁과 투쟁을 하게 되어 이질적인 정치, 종교, 윤리와 도덕 등을 만들어 내고 악육강식의 생존 원리에 따라 투쟁과 화합을 되풀이하여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립과 투쟁은 상호간에 원한을 쌓게 되어 진멸의 위기에 처해져 있다고 한다.

선천세계는 상극이 지배하여 세상이 원한이 쌓여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 재화가 일어나 참혹하게 되었다고 한다. 인간이 척을 짓고 욕구충족을 하지 못하면 원한이 생기는데, 원한이 쌓이면 개인 사이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서로 대립되고 갈등과 투쟁이 생기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대순사상에서는 천지도수가 잘못되어도 음양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상극투쟁을 한다고 한다. 우주의 운행법칙이라 할 수 있는 천지도수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상극으로 인한 투쟁이 심화되어 원한이 쌓였다고 한다.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한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68)

대순사상에서는 상극이 지배하는 선천세계를 상생의 새로운 세계로 건설하는 데에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증산 상제가 천지인(天地人)을 새로운 질서로

67) 전경, 교운 제1장 9절, pp. 155-156

68) 전경, 공사 제1장 3절, p. 98

만드는 삼계공사를 하였는데, 이를 개혁이라고도 한다. 개혁은 강증산 상제가 최초로 제시한 선경 건설을 위한 방법이다.

삼계공사는 곧 천지인 삼계를 개혁함이요, 이 개혁은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따라 하는 일이 아니고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니 예전에도 없었고 이제도 없으며 남에게 이어 받은 것도 아니요, 운수에 있는 것도 아니요. 69)

삼계공사인 개혁은 원한을 풀어 주는 해원과 상생의 원리가 지배하도록 하는 천지공사에 의해 열려진다고 한다. 삼계의 진멸 위기를 극복하여 새로운 선경의 이상사회를 건설하려는 것이 천지공사이다. 멸망해 가는 세계를 구하고, 질병에 시달리는 인간들을 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천지공사를 시행한 것이다. 천지공사란 천지간의 큰 일을 처리한다는 의미로서, 인간세계와 신명계의 원한을 풀어 주고 천지도수를 바로잡는 공사이다. 인간세계의 해원을 위해서는 인간들에게 쌓인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다. 신명계의 해원은 신명들 중에는 원한을 갖고 있는 신명이 있는데, 이러한 원신들이 인간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원신들의 원한을 풀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원한을 품고 있는 신에게 복을 주어 해원을 한다”⁷⁰⁾고 하였다. 한편 신명계를 해원하기 위해서는 신명계가 안정되도록 인간사회가 안정을 이루어야 한다. 인간세계가 갈등상태에 있고 투쟁을 하면, 신명계도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인간세계와 신명계는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신명계의 안정을 위해서는 인간사회가 안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천지도수는 우주의 운행법칙을 뜻하는데, 천지도수에 따라 만물과 인간은 존재하고 변화한다고 한다. 천지도수는 우주의 운행법칙으로 인간과 신명에 영향을 미친다. 천지도수가 어긋나게 되면 우주의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이변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인간세계와 신명계의 원한을 풀어 주는 것만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천지도수를 바로잡아야 후천세계가 건설될 수 있다고 한다.

신인조화는 대순사상이 추구하는 이상 상태인 선경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69) 전경, 예시 5절, p. 312

70) 전경, 공사 제1장 29절, p. 109

주요한 방안이다. 신과 인간이 상생적 관계가 실현될 때, 이상사회인 선경이 건설될 수 있다. 신도(神道)인 신의 뜻과 인간의 행위가 일치하여야만 이상사회인 선경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신도에 따른 생활을 하여야만이 상극지리(相剋地理)가 상생지리(相生地理)로 개조되어 우주의 질서가 바르게 잡히고, 인간세계가 모순과 갈등, 대립과 투쟁이 종식되고 화합을 이루게 된다고 한다.

V. 結論

신인조화의 의의와 사상적 가치를 살펴 보았다. 신인조화는 신과 인간이 공존하면서 상생한다는 의미와, 신과 인간이 천지자연의 이치에 따라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리하여 신인조화는 기존의 종교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사상으로써, 인간존중, 인격완성, 완전한 조화, 이상사회의 실현 등의 사상적 가치를 갖고 있다.

신인조화는 인간이 신과 같은 존재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기존 종교나 우리의 전통적 신관에서는 신은 인간 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인식되었고, 인간은 신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신인조화는 신 보다 인간이 더 존귀한 존재이며, 오히려 신이 인간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인간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인격을 완성하여야 한다. 인간이 신과 같은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참된 성품을 갖고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격완성을 위해서는 남에게 척을 짓거나 원한을 사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잘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신인조화는 신과 인간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 한다는 것으로써, 자연과 인간의 조화, 인간과 인간의 조화 등을 의미한다. 인간이 신과 공존하면서 상생적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들과도 완전한 조화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신인조화는 대순사상의 궁극적 목표인 이상사회인 선경을 건설하는데 의

의가 있다. 인류는 이상향을 실현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아 왔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종교는 절대신의 구원, 물질적 욕구의 절제를 통한 진정한 자유의 향유 등을 교리로 삼아 왔으며, 이러한 삶이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가르쳐 왔다. 대순사상에서 제시하는 이상사회는 다른 종교에서 제시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

대순사상에서 지향하는 이상사회는 종교적 차원의 의미만이 아니라, 인간의 윤리적 성숙과 도덕성을 함양하는데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 인간을 신과 같이 존중해야 하며, 스스로 높은 수준의 인격완성을 추구해야 하며, 우주가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며 인류의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현재 인류는 각 종교에 존재하는 온갖 형태의 독단주의로 종교간의 보다 나은 관계형성이 차단되는 세계에 살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종교와 문명에 공통되는 최소한의 보편윤리(普遍倫理)를 정립해야만 한다고 한다. 유엔교육사회문화기구(UNESCO)에서 “21세기 보편윤리강령”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의 한스 쾨링 교수는, 현재 우리는 문명적 대립과 충돌로 각종 문화·종교적 다름에 의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하면서, 보편윤리강령을 정립하는 작업이 매우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⁷¹⁾ 그는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상호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종교를 가진 자와 비종교인들, 그리고 서로 다른 종교인들간에도 화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편윤리의 정립이 요구된다고 한다.

신인조화는 종교간의 교류와 인류생존을 위한 보편윤리를 정립하는데에 사상적 기초가 될 수 있다. 보편윤리가 생명을 존중하고 정직하고 공정하게 남을 대하며, 진실되게 행동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이라 할 때 신인조화는 이러한 내용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이다. 신인조화의 인간존중과 인격완성, 완전한 조화 등은 보편윤리를 정립하는데 기초가 되며,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보다 나은 사회, 즉 실현 가능한 이상사회로 접근할 수 있는 대안이라 할 수 있다.

71) 중앙일보, 1997년 4월 29일, p. 18

【참고문헌】

- 김명자, 김건 譯, 엔트로피. 서울 : 동아출판사, 1992
- 金樹澈, 道德과 倫理(서울 : 敎文社, 1987), p. 149
- 金正泰, “大巡眞理의 宗旨에 관한 研究”, 大巡思想論叢, 제1집(大巡思想學
術院, 1996)
- 김종엽 역, 지그문드 프로이트 토템과 타부. 서울 : 문예마당, 1995
- 金泰坤, “韓國巫神의 種類”, 국제대학논문집(1969)
- 金亨錫, 倫理學. 서울 : 三中堂, 1981
- 盧吉明, “神과 人間의 원한을 抹消한다”, 趙明基 외 33인, 韓國思想의 深層
研究. 서울 : 宇石, 1990
- 大巡眞理會 敎務部, 典經. 서울 : 大巡眞理會 出版部, 1989
- 大巡眞理會 敎務部, 大巡指針. 서울 : 大巡眞理會 出版部, 1984
- 文相熙, “土俗信仰이 韓國人의 倫理觀에 미친 影響”,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哲學思想의 諸問題. 서울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5
- 朴昇植, “陰陽合德의 現代的 照明”, 大巡思想論叢, 제2집 (大巡思想學術院,
1997)
- 柳承國, “韓國人의 神觀”, 張秉吉 教授 隱退紀念論叢 刊行委員會, 韓國宗教
의 理解, 서울 : 集文堂, 1985
- 鄭大珍, “大巡思想研究를 위한 提言”, 大巡思想論叢, 제1집 (大巡思想學術
院, 1996)
- 韓相壽, 韓國人의 神話. 서울 : 文音社, 1980
- Berger, Peter, *The Social Reality of Religion*. Penguin University Books,
1973., 이양구 역, 종교와 사회. 서울 : 종로서적, 1989
- Campbell, Joseph, *The Mask of God : Primitive Mythology*. New York :
Viking, 1959
- Henri Bergson, *Les deux sources de la morale et dela religion*, 88e ed. Paris
: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58, 康英啓 譯,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 서울 : 探求堂, 1985

- Fromm, E., *The Sane Society*. London, 1956
- Maslow, Abraham H. "The Theory of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July, 1943)
- Randal, John Herman, *The Making of the Modern Mind*. Cambridge, Mass. : Houghton Mifflin, 1940
- Rich, John M., *Education and Human Value*. Menlo Park, California : Addison Wesley, 1968
- Tatje T., and F. L. K. Hsu, "Variations in Ancestor Worship Beliefs and Their Relation to Kinship", *Southwestern Journal of Anthropology*, Vol.25(1969)
- Tompkins, Peter, and Christopher Bird, *The Secret Life of Plants*. New York : Harper & Row, 1972
- Taylor, E.B., *Religion in Primitive Culture*. New York : Harper & Row, 1958
- Wach, Joachim, *The Comparative Study of Religions*. Columbia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8